

영화인 구술사로 한국영화사 추리하기

- 영화기업 '세기상사'를 중심으로 -

이수연*

〈차 례〉

1. 들어가며
2. 구술자는 거짓말을 하는가?
3. 세기상사와 국괘남
4. 나가며

[국문초록]

한국영화사를 연구함에 있어, 문서 또는 영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실제 그 역사를 경험한 영화인들의 기억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2004년부터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진행되어온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로 축적된 영화인 구술 자료를, 한국영화사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1950년대 외화수입사 연구에 활용해보고자 했다. 1950년대 활동한 많은 외화수입사들 중에서도 당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활동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세기상사가 어떤 회사였고, 또 그 회사의 운영 주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세기상사는 각종 원자재를 들여오는 수입 상사로 시작하여 1954년부터는 대표 국괘남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인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다. 극장을 운영하고 자체적인 배급 시스템을 만들며 1960년대까지 자본을 축적해갔던 세기상사는 1970년에 들어서며 한국 영화 산업의 부진과 항공기 사고 등을 거치며 쇠퇴해갔지만, 그 이전까지 외화 수입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제작과 배급·홍행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영화 산업을 지탱하던 큰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60년대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기업들이 계열사들을 늘려가며 자본을 축적하고 훗날 대기업으로 성장했던 기간 동안, 놀랍게도 무역업으로 축적한 자본을 영화에 투자하며 문화

* 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 연구원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했던 세기상사의 움직임을 당시 세기상사에서 또는 세기상사와 함께 영화업에서 일했던 영화인들의 구술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구술사, 세기상사, 1950년대, 한국영화사, 외화수입사, 국래남

1. 들어가며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간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영화인들의 기억과 경험의 자료들을 수집·보존해오고 있다.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만큼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의 양도 놀랍지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에서 한국영화사의 주요한 순간들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한국영화사 연구자들에게조차 ‘영화인 구술채록’ 자료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화사 연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영화사 연구 중 문헌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기 또는 대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개인적인 관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문헌 자료의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 구술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 1950년대, 특히 외화수입사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 주제이다. 1950년대 외화수입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영화사 내에서 아직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헌 자료 상으로는 1950년대에 전반에 걸쳐 몇 개의 외화수입사가 운영되었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는 수많은 외화수입사들이 단 한 편의 영화만을 수입하고 사라지는 등 회사 자체의 유동성이 컸던 이유도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외화수입사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1950년대 한국영화사 연구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당시 제작된 한국영화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심의자료, 전단, 신문과 잡지의 기사 및

영화광고 등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극장을 비롯한 흥행업이나 영화 산업 전체, 한국영화제작사에 대한 연구는 간혹 이루어지고 있으나,¹⁾ 특히 개별 회사 자체 또는 그 회사를 운영한 주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²⁾

정확하게 잡계가 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신문광고나 전단 등을 통해 파악되는 외화수입사의 수는 전쟁 직후인 1954년에만 해도 25개사가 운영되고 있었으며³⁾,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1961년 영화법이 제정되고 기업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7개사로 통폐합되었다. 또한 극장 흥행에 있어서도 1956년 <자유부인>(한형모, 1956)의 흥행과 국산영화 면세 조치 이후 한국영화의 제작편수가 증가한 데 비해 외환 정책에 의해 매년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철저히 제한·조정되고 있었다. 때문에 상영편수는 한국영화보다 적었지만, 상영일수를 따지면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외국영화가 한국의 극장들을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외화수입사들은 외화수입을 통해 영화산업 내에서 막대한 자본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극장을 매입·운영하면서 각 회사들만의 배급 라인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영화산업을 이해를 위해서는 외국영화의 수입과 배급·흥행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1950년대 가장 활발히 수입사이자 극장 흥행업자로서 활동했던 '세기상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기상사는 1952년 종자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를 수입하는 작은 수입사로 출발하여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업에 뛰어들며 '세기영화사'를 설립했고, 1958년에는 대한극장과

-
-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50년대 영화제작사와 외화수입사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에는 김려실, 「195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미국적 가치에 대한 양가성-한형모 프로덕션의 영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4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이길성, 「1950년대 서울 개봉관의 변화와 영화산업의 역동성-외화수입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2호, 한국극예술학회, 2021 등이 있다.
 - 2) 영화사나 운영주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50년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영화사와 그 운영주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는 '신필름'과 대표이자 감독이었던 신상옥을 들 수 있다. 조준형, 『영화계국 신필름』, 한국영상자료원, 2009; 조정희, 『영화사 '신필름' 연구: 제작과 배급방식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함충범, 「신상옥 영화의 기술적 시도와 제작 선점화의 양상들」, 『현대영화연구』 17권 2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1 등 참조. 특히 『영화계국 신필름』의 경우,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2008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된 원로영화인 구술 주제가 <신필름>을 통해 수집된 구술 자료를 활용하였다.
 - 3) 『외국영화수입의 맹점』, 『경향신문』, 1954년 6월 5일자 2면 기사.

세기극장을 개관·운영하며 그 몸집을 키워갔다. 또한 한국에서는 최초로 20세기폭스 영화사의 한국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달고 미국영화를 직접 수입해 온 회사로 1950년대 외화수입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과 중요도에 비해 그 연구나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술 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세기상사(세기영화사)라는 영화 기업의 운영 방식과 그 성격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사실 개인의 오래 전 기억과 경험이라는 구술 자료의 특성 상, 때로 영화인들이 말하는 서사들은 실제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부정확하거나 약간의 오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술을 통한 영화사 연구는 실제의 문헌 자료들과 끊임없는 비교와 대조를 통해 서로 보충·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영화인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신문기사를 비롯한 문헌 자료들과 다른 시기, 다른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터뷰 자료들을 교차 활용하였다.

2. 구술자는 거짓말을 하는가?

1) 세기상사가 ‘장난’을 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김재웅의 생애사에는 ‘세기상사’에 대한 재미있는 증언이 등장한다.

김: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세기상사 국쾌남 사장이 그걸 장난을 해 가지고, 모든 영화는 세기상사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공부에... 그때 상공부 수입과에서 또 신용장은 나왔는데 그런 장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 센츄리컴페니거든, 그거 영어 이름이, 그 사람네. 그래 가지고 내가 국쾌남 사장하고 막 가서 싸우고 텔렉스 나간 거 보자.

근데 자꾸 <소돔과 고모라>는 랭크오르가나이제이슨이라고 영국에서 제작

을 한 거거든? 이게 큰 징 치는 거 있어요, ‘짜양’ 하고. 그게 그 회사 건데, 우리도 무역 등록이 있는데 영화는 자기네 회사를 통해서 저거 하라고 고시 가 바뀌었어. 보니까 이 세기상사를 통해서 수입 대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 규정을 바뀌었으니 어떡해? 싸우자면 뭐 몇 달 갈 거 같고 그래서 일단 신용장을 내보냈지.⁴⁾

위 김재웅의 구술에서 신문기사나 광고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1964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대한극장에서 영화 <바라바>(리처드 플라이저, 1961)가 상영되었으며, <소돔과 고모라>(로버트 알드리치, 1962)가 약 한 달 뒤인 8월 22일 스키라극장에서 개봉했다는 것이다. 이 구술에서 주목할 점은 어떻게 세기상사가 모종의 ‘장난’을 통해 상공부를 움직여 “모든 영화는 세기상사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된다”와 같은 고시를 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영화계는 상공부와 크게 마찰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1962년 영화법이 제정되고 난 후, 정부는 영화 기업화를 목표로 영화사의 통폐합을 종용했다. 그 결과 영화제작사는 65개에서 16개사로 통합되었고, 외화수입사는 28개에서 7개사로 통합되었다. 이후 1963년 제1차 영화법 개정되면서 영화제작업과 수입업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각 영화사의 제작실적에 따라 외국영화의 수입 권한을 주는 ‘쿼터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쿼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제작사들이 쉽게 외화를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들은 영화 제작을 통해 얻은 수입 쿼터를 기존 수입사들에 돈을 받고 양도하거나, 또는 수입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 쿼터를 이용했다. 따라서 원래 외화수

4) 김승경, 『2015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1권: 김재웅』, 한국영상자료원, 2015, 72-73쪽. 구술자 김재웅은 1960년대 초 무역회사인 화천공사에 입사하여, 외화의 수입 업무를 담당했다. 1973년 이후 영화법이 개정되며 외화수입사와 영화제작사가 일원화되었고, 그에 따라 구술자의 업무는 한국영화 제작으로 확장되었는데, 그가 제작했던 주요 작품으로는 <별들의 고향>(이장호, 1974) - <바보들의 행진>(하길중, 1975), <겨울여자>(김호선, 1977) 등이 있다. 인용된 구술은 화천공사가 외화수입업을 시작한 이후 그가 처음 수입하게 된 영화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당시의 고충을 토로하며 나온 발언이었다.

입사로 시작했던 세기상사가 국내 영화제작사들의 수입 대행을 해줬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외화수입은 단순히 문화계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무역이며, 따라서 경제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화수입업은 문교부의 소관이면서 동시에 상공부의 관리를 받는다. 1963년 상공부는 외화 부족과 저물가 문제를 잡기 위해 수입에 제한을 걸겠다는 내용의 고시 924호("외환 사정이 완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전 품목을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요한다")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영화사들은 쿼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들여올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필품 수입 역시 중단되어 한국영화 제작에도 제동이 걸렸다. 영화인들은 일제히 이 조치에 반발했다. 영화제작사들은 영화를 만들 수 없어 걱정이었고, 극장들은 외화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산영화까지 제작이 불가능해지면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없어져 폐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내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와 더불어 무역업자들에 대한 정리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같은 해 상공부는 수출 실적이 미화 5천 불에 미치지 못하는 수출입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영화업만으로는 당연히 이런 높은 실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63년 하반기부터 1964년 상반기까지 군소영화사들의 통합으로 설립된 오스카영화사, 아카데미영화사, 한국예술영화사, 신필름의 수출입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불이무역과 세기상사 다음으로 큰 영화사들이 줄줄이 수출입업 등록이 취소된 것이었다.

그나마 63년 상반기에 외화 지불이 이루어진 영화들의 경우, 10월에 다시 발표된 상공부 고시 제965호("그러나 상공부장관이 외환수급계획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정상품목으로 존치하고 수입허가를 통한 사항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수급케 할 수 있다")에 따라 외환은행장의 허가를 득하면 국내 수입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시기 수입되었던 <바라바>, <삼손과 데릴라>가 모두 그렇게 들어왔다. 따라서 구술자가 이야기한 '갑자기 고시가 바뀌어서 모든 영

화는 세기상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은 다소간의 과장은 있지만, 이 시기 대부분의 영화사들이 수출입 등록이 취소되었던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구술자의 증언과 문서 자료들을 함께 대조해서 본 결과, 구술자는 완전히 거짓을 말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며 일부의 사실이 부풀려진 면이 있으나, 그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왜 구술자는 당시의 상황을 저렇게 기억하고 있는가?'이다.

2) 사료를 통해 본 세기상사

김재웅의 증언을 다시 보자. 그는 '장난'이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일개 영화사의 사장이 상공부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영화인들이 '세기상사'라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기상사가 그런 장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춘 회사였음을 의미한다. 도대체 세기상사는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던 걸까?

신문기사를 비롯한 문서 자료를 통해 보는 세기상사의 모습은 욕심쟁이 그 자체이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에 세기상사라는 네 글자를 넣으면 나오는 신문기사들의 절반 정도가 세기상사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들이다. 나머지는 상영 중인 영화를 홍보하는 광고 또는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이다. 극장 탈세, 외환법 위반, 관세 포탈 등 세무조사의 이유도 다양하다. 게다가 세기항공, 세기냉동 같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 취급 품목도 영화 필름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담배 필터, 냉방기 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렇다면, 각 시기별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기상사가 갖고 있었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자세히 알아보자.

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내 삼화백당 내에 있는 세기상사(사장 국쾌남)에 대해서는 모종의 보유불 매각 시 부정사실을 인지도 장부 일체를 압수하여 범죄 사실을 추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수사결과 이중장부가 있음이 발각되어 방금 치안국 경제계에서는 불철주야 문초와 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보유불매입에 흑막 탄로」, 『경향신문』, 1955년 9월 9일자 3면 기사 중 일부

문교부에서는 지난 19일 ‘한은’에 대하여 세기상사에서 도입한 ‘와나 부라더스’ 사작 <만화전집> 20권은 문화영화이니만치 동 영화 수입에 있어서는 상공부 ‘코타’에서 제외한다는 통고를 하여 ‘FOB’ 가격 6,000불의 동 영화는 20일 상공부에 대한 조회도 없이 신용장이 개설되어 업계에 물의를 던지고 있는데 이는 제6차 정부매각외화로 도입될 것이라 한다. 한편 강상역 국장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는 ‘상공부고시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만화영화 도입에 물의」, 『동아일보』, 1956년 1월 29일자 4면 기사 중 일부

화공약품의 ‘구리세링’은 ICA도입계획과 민간무역 계획에 있어 지난 2월 7일자로 금수품목으로 되어있는 바 시내 세기상사에서는 전매청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관수용이라는 명목하에 작년 12월 말경 60톤을 선수입하고 상공부에 소정 사전신고도 없이 동품이 과도조치를 추진하여 왔던 것이나 상공부 당국에서는 동부 공고 제208호 과도조치조항에 적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각가처분을 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전매청에서는 전 세기상사와 동품 공급계약을 해약하고 정부매각 불로서 150톤의 ‘구리세링’을 관수용으로 수입하게 된 사실이 상공부 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차 세기상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인문서를 발부하여 동품의 ICA자금에 의한 결제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인 바 공정하여야 할 관인이 일개 업자의 상술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 업계는 깊은 의혹을 품고 있다.

- 「선수입 구리세링 결제를 획책」, 『조선일보』,
1956년 5월 6일자 2면 기사 중 일부

전매청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세기상사에서 신청한 담배용 ‘휠타’ 2만 상자의 수입허가를 해주었다고 말썽을 일으켰던 상공부는 결국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이것을 취소. 더욱이 중앙행정관청인 상공부가 한은으로부터 수입신용장 개설을 보류하고 급속히 취소조처할 것을 통고받았으니 그 체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기정… 떨어진 위신을 다시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나 또 없도록 상공부는 자아반성을 할 좋은 기회인 듯.

- 「[경제로타리] ‘휠타’로 망신한 상공부」, 『경향신문』,

1959년 1월 16일자 1면 기사 중 일부

1960년 이전까지,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일으켰지만, 세기상사의 1950년대 운영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만을 추려보았다.

당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의 수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의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외의 원자재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후 한국 경제에 있어 어떻게 외화(外貨)를 확보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자금(ICA)를 받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너무 낮은 환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날리고 있었다. 결국 1955년 8월 15일 한국과 미국은 ‘신공정환율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에서 보유한 외화의 대량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상공부 고시를 통해 정부매각불과 수출불의 사용한계를 명시·규정하고자 했다.

문제는 정부에서 외화와 영화 기자재, 그리고 생필품을 특수수입품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가하고자 했는데, 당연히 이러한 조치가 영화 수입사와 제작사 양측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세기, 불이, 대륙과 같은 큰 회사들은 외형상 ‘무역업체’로 분류되어 정부매각불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수도영화사와 같은 오직 ‘영화’의 수입과 제작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부매각불 보유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제한된 외화(外貨) 쿼터 안에서 기자재와 필름, 영화를 들여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세기상사의 경우 정부매각불 12만 달러를 낙찰받았는데, 이는 당

시 매각분을 구입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은 액수로, 10만~14만 달러 이상의 고액낙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런 고액낙찰자들을 상대로 부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세기상사의 이중장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외국영화 및 영화 기자재, 필름의 특수품목 지정에 따른 불만은 결국 상공부 고시 제225에 따라 해당 품목이 '정상품목'으로 변경되며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당시의 외화수입이 단순히 문교부의 정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그때마다 바뀌는 상공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상공부와 더불어 외국영화 수입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한국은행'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1954년에 한미무역협정을 통해 제정된 '일반민간물자 구매 절차'를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먼저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FR(구매요청서)와 PA(구매승인서)-이 문서들은 를 한국은행에 보낸다. 이를 받은 한은은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에 대해 SA(부(副)구매승인서)을 발행한 후, 미국 측 대리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구한다. 그러면 수입업자가 개설된 신용장을 기반으로 상공부로부터 I/L(수입허가)가 나오고, 여기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물건을 수입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특수품과 정상품목의 구분, 금지품목의 설정, 연간 수입 쿼터 제한 등의 주요한 업무들은 상공부의 고시를 따르는 것인데, 한은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근거나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보고 수입허가를 내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수입허가의 업무는 1950년대 후반 내내 상공부와 한은 그리고 세관을 왔다갔다 하며 무역 절차에 계속된 잡음을 만들어냈다.

특히 관수물품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을 받아(외국영화는 입찰 경쟁의 절차는 없지만, 대신 문교부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계약을 진행한 후 상공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한은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거치는 만큼 각 기관의 기준이 다르거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혼란이 야기되곤 했다.

다시 세기상사의 사례들로 돌아가 보자. 1956년 애니메이션 영화를 문화 영화로 분류하여 상공부의 사전승인 없이 문교부 추천만을 가지고 들여온 것은 확실히 세기상사의 꼼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는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무엇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세기상사는 이 작품의 교육적 목적을 부각시킨 후 문화영화로 분류함으로써 상공부의 쿼터 제한에 걸리지 않고 수입한 것이다. 이는 세기상사가 자신이 가진 정치력을 활용해 특혜를 본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에 가깝다.

그러나 글리세린의 수입의 경우는 세기상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955년 말, 정부는 이듬해에도 계속 정부매각불을 풀겠다는 요지의 무역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업자들도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전매청 역시 이에 따라 글리세린 공급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고 세기상사는 1955년 12월 즈음 낙찰을 받아 선수입(D/P)을 진행했다. 그런데 글리세린은 전매청에서만 필요한 물품이 아니다. 여기저기에서 글리세린에 대한 중복 수입이 진행되었고, 이에 국내에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을 걱정한 부흥부(復興部)는 글리세린을 ‘금수품목’에 넣어버렸다. 전매청은 이 조치에 따라 발 빠르게 세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줄지에 세기는 정부와 계약도 안된 글리세린 150만 톤을 선수입해 들여온 셈이 되었다.

전매청의 담배용 필터 수입과 관련된 기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용한 기사의 내용만 보면 세기상사는 전매청의 추천도 없이 담배 필터를 들여왔고, 상공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후 한은에 신용장 개설을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전매청의 새로운 담배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7년 말 전매청은 국내 최초로 필터가 달린 ‘아리랑 담배’의 생산 계획을 밝히고 이에 따라 세기상사에서는 전매청으로부터 필터 수입을 낙찰 받아 진행했다. 그렇게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필터가 달린 아리랑 담배가 생산 되었는데, 그 시연회에서 도통 담배연기가 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전매청은 문제의 원인을 불량한 필터에 있다고 보고, 필터 수입사를 태

양상사로 변경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 상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매청은 1958년 12월 20일 세기상사와 미제 필터 12,000상자를 6,096만 환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기일을 2월 24일로 하였다.⁵⁾ 이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려우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매청은 세기상사에 수입추천을 준 일이 없다고 주장했고, 상공부는 세기상사에 담배 필터 수입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함으로써 결국 세기상사는 필터 수입을 하지 못한 채 납품일을 넘기게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체상금(지체액의 1/300)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세기상사가 늘 이런 의혹들에 대해 그저 순진무구한 피해자라거나 이 시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였으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원조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환율정책을 통해 일부 기업들에게 자본을 몰아줌으로써 향후 70년간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기반들을 쌓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세기상사와 관련된 일련의 신문기사들은 이러한 이승만 정권 말기의 경제적 혼란과 그 안에서의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 세기상사 역시 한편으로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시스템으로 인해 다소간의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그만큼 무역업을 통해 큰 이득을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 산업의 큰 축을 떠받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5) 「지체상금 수입 감소, 전매청의 활타」, 『조선일보』, 1959년 3월 21일자 2면 기사 참조.

3. 세기상사와 국폐남

1) 세기상사와 국폐남에 대한 증언들

그럼 본격적으로 구술을 통해 신문기사나 당시 사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세기상사와 국폐남 사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인 구술 채록 사업 초기인 2007년 진행된 전경섭의 구술에서는 국폐남의 출신과 그가 어떻게 영화업에 뛰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구술자 전경섭은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1940년 무렵 일본 도쿄의 영화 학교 기술과에서 영사기사 수업을 받아 일본 영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943년에는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총독부 전라남도청 소속 지방기수로 일했다. 해방 후에도 미군정청 지방기수로 잠깐 생활하다가 형인 전기섭이 적산인 제국관을 불하받아 동방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을 하자 거기에 취직역 겸 선전부장으로 일하며 동시에 외화배급사인 중앙영화사 호남지사장, 경제통신사 광주지사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방배급업자로 일했다.

전경섭: 그가 미군 장교 통역하다가, 밀티기서 중앙영화, 일테른 외화를 수입할
 떡에 거시기 해갖구, 인자 지가 전국에 거시기 했제. 세기영화사라구 그래
 갖구, 돈은 몹시 불었제. 딸라로 벌고 또 거시기 허든 미군 거시기니까.
 그래가 잘 벌어 갖구 본래 담양 출신이여. 근게 뭐 관록이라고 통역 군인
 뭐 거시기 미군 그 통역했던 사람, 경력 뺏이 어. 학교도 아파 별로 거시
 기, 저 거시기까지 못 갔을 거여. 중간 아파 대학 문턱은 갔을...
 (중략) 그러고 인저 뭐 미군부대 거시기 여그서 많이 벌었다 그래, 다른
 사업. 늘 이런 관계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여? 그 밑에 전부 담양서 사찰게
 머 거시기 머 허든 형사 뿌스러기 멧헌 사람 전부 다 갖다가 서울 올라가고
 담양 거시기라나서이. (중략) 자기보다 연상도 그냥 말도 함부러 허고, 세무
 서 머 과장인가 서장까장 허던 사람도 지 전무로 쓰고 어찌고 그래서.

전경섭의 구술에 따르면, 국쾌남은 담양 출신으로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경제적 기반도 없었지만 미군의 통역을 맡으며⁶⁾ 돈과 연줄을 만들었고, 그렇게 대한극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그의 구술에서 국쾌남은 담양 출신의 지인과 가족들을 세기상사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당시 신문기사과 1962년 발간된 『한국연예대감』에 기록된 대한극장과 세기상사의 임원 명단을 보면 친인척으로 보이는 국한철(세기상사 전무), 국채한(대한극장 경리) 등과 함께 취재역이자 국쾌남의 부인이었던 김정희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실제로 담양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필요에 따라 세기상사에 임직원으로 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쾌남의 인적 활용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은 우기동 사장이다. 영화인 구술에서 우기동은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표현된다. 세기상사는 그리고 국쾌남은 왜 이러한 바지사장이 필요했던 것일까?

김: 우기동 씨는… (웃음) 원래 부산의 형사과장이었어요.

공: 네네, 들었어요.

김: 음. 근데 이제 국 회장이 영화 사려고 했었는데 뭐야, 그 돈 가지고 도망을 갔어.⁸⁾

6) 1958년부터 세기상사주식회사 영업부에서 일했던 박태준의 구술에 따르면, 국쾌남은 미군정기 철도경찰로 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철도경찰은 미군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물자들의 운송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 출입하거나 미군과도 접촉할 일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민, 『202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2권: 박태준 한진섭 이남기 지현술』, 한국영상자료원, 2020, 30쪽 참조.

7) 1941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구술자 김일수는 1960년대 초, 사촌인 박태준의 소개로 세기상사에 입사하며 영화일을 시작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대한극장 서무과, 영업부, 총무과, 선전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에는 호남권 극장들의 서울출장소로 영화 배급을 담당했다. 2022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된 그의 구술은 이 글이 완성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일수의 구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영민, 『2022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1권: 1980년대 이후 극장 지형의 변화 - 김형종·김일수 편』, 한국영상자료원, 2022 참조.

8) 「국상 등 거액 도난, 『조선일보』, 1956년 5월 3일자 3면 기사. 본 신문기사에 따르면 당시 국쾌남은 소공동 삼화빌딩에 위치한 세기상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720원과 국채 1,881매 및 액면 981,130환(시가 290,630환)을 도난당했다고 한다. 당시 화폐가치를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1956년 쌀 한 가마니(80kg)의 가격이 대략 700환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정말 횡령금이(그리고 세기상사의 보유현금) 엄청나게 큰 돈이었으며, 세기상사의 운영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공: 언제 얘기예요, 이게?
 김: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로 하나 넣... 그게 이제.
 공: 예예, 에피소드.
 김: 왜 그러냐면 우기동 씨가 온 동기가, 그때 당시 일본으로 배 타고 어디...
 공: 도망갔어요?
 김: 도망가다가 저 부산에서 수사과장한테 이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때 당시 수사과장이 우기동 씨였어요. 그 양반이 잡어 가지고 국괘남 씨한테 연락을 해서 돈 그대로 주고, 그렇게 한 뒤로 이제 세기상사를 저거, “같이 저걸 하자” 해 가지고 (픽업 되신 거구나) 픽업 돼 가지고 사장을 헌 거죠. (중략)
 공: 우기동 사장님은 일종의 뭐랄까,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나서는 사장님 역할을 좀 했던 거죠, 나중에?
 김: 아니,
 공: 실무적인 일은 국괘남 회장님이나...
 김: 세기상사를 이제 정식으로 거기 저 필동으로, 대한극장으로 오면서 우기동 사장을 이제... 그런 거지.
 공: 그러면 우기동 사장님의 역할이나 특출난 어떤 지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영화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김: 영화, 저 아니지. 형사. 그러니까 관리헌 거죠 뭐, 직원들.⁹⁾

김일수의 말처럼, 우기동이 국괘남의 눈에 든 것은 회삿돈을 들고 도망간 직원을 잡아다 주면서부터였다. 형사와 특유의 날카로운 눈으로 직원들의 관리를 부타하기 위해 국괘남은 우기동을 세기상사의, 더 정확히는 세기영화사의 사장직에 앉혔다. 사실 이 시기는 세기상사와 세기영화사 그리고 국괘남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1955년 이전까지 수입대행업을 주력으로 삼았던 세기상사는 이때부터 영화업의 규모를 키우기 시작하며, 세기상사의 자회

9) 공영민, 『2022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1권: 1980년대 이후 극장 지형의 변화 - 김형중·김일수 편』, 한국영상자료원, 2022, 150-151쪽.

사인 세기영화사를 설립하고 서울 충무로에 대한극장을 개관하는 동시에, 세기극장과 서대문극장을 인수·운영했다. 그리고 이 무렵 국채남은 전남 담양의 자유당 소속 제4대 민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정치인으로서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국채남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재경위로 활동하며, 극장 입장세법 심의에 참석하여 극장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계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정작 중요한 세기영화사에는 영화 업무와는 무관한 관리직 사장을 앉혀놨다면, 실제로 영화 업무는 누가 봤을까?

공: 선생님, '샘플이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박: 예.

공: 그거는 외국에서 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박: 외국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로 MGM·20세기·유니버설·워너, 주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시고, 그때 영문 타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문 타자해서 MGM이면 MGM에 보내서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샘플로 선전물이 오죠.

공: 그 영화 제작사, MGM·20세기 이런 데 본사에서 보내준다고요?

박: 네네. 본사에서 직접 옵니다. 직접 거래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장님'이 우기동 사장님이요?

박: 아닙니다. 국채남 씨. 국채남 회장님.

공: 그거를 다 국채남 회장이 직접 하셨어요?

박: 예. 전부 직접 하셨어요. 그 양반이 철도경찰 하시면서 미8군에 출입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히어링이 아주 능통하십니다.

공: 아, 영화도 그럼 직접 고르셔서 하셨다는 거네요?

박: 네. 미8군에서 영화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하시기 시작한 거 같아요. 맨 처음에는 세기상사주식회사라 그래 가지고 전매청에 납품하는 셀로판지 있습니다. 담배 위에 하얀 거. 그거 수입해서 전매청에 납품을

했어요. 그 뒤로 영화 수입을 하게 됐죠.¹⁰⁾

박태준의 구술에 따르면 국채남은 직접 미8군에서 영화를 보며 수입해올 작품을 고르고, 미국에 있는 영화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입 과정을 진행시키는 등, 수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맡아 보았다. 보통은 반대의 방식으로 회사의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국채남은 달랐다. 이것이 1960년대 이후 동양영화사(불이무역)와 세기상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인득은 본인은 영화 업무 전반에 나서지 않은 채 영화수입업과 극장업은 동생인 김인동에게 맡기고, 이를 자금줄로 하여 건설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¹¹⁾ 그에 반해 1960년대 이후 국채남 역시 오토바이, 냉동, 항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지만, 언제나 그의 사업 중심에는 영화가 있었다.

공: 그러면 세기상사가 이 세기영화사, 그러니까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몇 프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역회사에서?

김: 아, 전체적이지 뭐. 극장하고.

공: 전체라고 봐야 돼요, 60년대에는?

김: 어. 극장하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해요. 거기 뭐 만 거 한 거 뭐 세기냉동이라고 뭐 있었는데 그건 따로 저거지 직접 저거 하지 않았어요.

공: 그러니까 60년대에는 국채남 회장님도 영화 쪽에 완전히 집중하셔서? 그러

10) 공영민, 『2020년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2권 - 박태준, 한진섭, 이남기, 지현술 편』, 한국영상자료원, 2020, 29~30쪽.

11) 김인득의 회고에 따르면 1959년 전국 6대 도시 11개 개봉관을 소유·경영하게 되면서 한국의 흥행업계를 완전히 장악한 김인득은 “단정사 건너편에 반도극장을 신축, 이곳을 소문난 극장가로 만들었다. 매표구를 통해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금이 엄청났다. 공짜손님은 있어도 외상손님은 없는 것이 극장사업이다. 은행원이 직접 극장으로 출장 나와 현금부대를 싣고” 갔을 정도로 흥행업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국내 흥행업계를 완전 장악하자 의외로 그때부터 나(김인득)는 마치 방황타를 잃어버린 배처럼 휘청거렸다. 더구나 그 무렵 아내는 나에게 흥행업이 아닌 생산적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자주 권고했다.” 이에 고민을 하고 있던 김인득은 어느날 “상공부의 한 관리리를 만나 무심코 생산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시멘트산업이 유망하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복건기업(주)을 설립하며 중공업·건설업으로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다. 「나의 기업인생(49) 삶과 신앙: 벽산 김인득 <12>」, 『경향신문』, 1994년 3월 22일자 12면 기사에서 인용.

면 국채남 회장님의 관여도는 얼마 정도?

김: 관여도는 뭐야.

공: 그러니까 영화 사업에 있어서 국채남 회장님이 직접 처리하시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였나요?

김: 아이, 그 뭐 모든 걸 다 관리.

공: 모든 걸 다 관리하셨어요?

김: 모든 영화.

공: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김: 그럼! 모든 거. 매일 저 부장들 회의해서 다 파악하고 그랬지. 아휴! 머리 좋아요.¹²⁾

2) 영화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

1960년대 내내 영화에 있어 국채남과 세기상사는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외화의 수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제작에도 손을 뻗은 세기상사는 1960년대 중반부터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이나 (성공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주괴인 왕마귀>(권혁진, 1967)와 같은 고도의 특수효과 기술이 요구되는 SF영화의 제작에까지 힘을 쏟았다.

1960년대 세기상사가 이처럼 한국영화 제작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필름에서 연출부로서의 일을 하다가 1960년대 중반 2년 계약을 맺고 세기상사의 전속으로 잠시 함께 일했던 임원식 감독은, 세기와의 영화 제작 작업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배: 감독님, 세기상사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제작환경이?

임: 세기상사요? 세기상사는 돈이 참, 대한민국 영화사 중에 제일 많았는데, (중략) 세기상사는 다른 영화사하고 달라서, 다른 층무로에 있는 군소제작사들

12) 공영민, 『2022년 한국영화사 기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1권: 1980년대 이후 극장 지형의 변화 - 김형중·김일수 편』, 한국영상자료원, 2022, 153-154쪽.

은 제작하다가 돈이 없어요. 월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이 그런 걸 겪었을 거예요.

세기상사는 예산에 감독이 싸인 하면 절대로 예산이 없어서 또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니까 편해요. 그 대신 예산을 깎는 데는 뭐 귀신 같이 해요. 밥값도 2,500원 짜리를 2천원으로 해라, 뭐 숙식도 “야, 한 사람이 5천원인데 셋이 가면 만 5천원 이게 되냐? 만원이면 잘 수 있는데.” 그럼 깎자고. 그러니까 제작부가 빵 해먹을 거 이 사람들이 다 잘라 버리는 거야. (웃음) 그렇게 박해. 그러나 그 대신 이미 결정된 거는 하나도 절약하거나 그런 거 없고.

또 배우도 마찬가지로요. 배우 개런티가 전체가 10만 원이다. 10만 원 안에만 맞추면 신성일을 갖다 쓰던 이순재를 갖다 쓰던 말을 안 해. 녹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책임 하에 책임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한테 다 맡겨요. 채근을 안 해. 그런 곳이 세기상사였다. 근데 그런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회사가 신필름하고 세기상사가 두 군데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¹³⁾

사실 세기상사가 한국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1차 영화법 개정으로 인해 외화 수입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들 역시 수입 쿼터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한국영화 제작 실적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괘남은 직접 현장을 찾아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정도로 영화 제작에도 애정을 쏟았다.

배: 그럼 국괘남 사장님은 전혀 개입은 안 하셨던

입: 가끔 국괘남 씨는 식사하자고, 자기 집이 옆에 있으니까. 또 촬영 현장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농담 삼아 “야, 수미야 일로 와 봐.” 그러면 “왜?” 하고 뛰어오다 보면 국괘남 씨가… (웃음) 국괘남하고 썸이 있을 때거든.¹⁴⁾ (중략)

13) 배수경, 『2016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3권 - 임원식 편』, 한국영상자료원, 2016, 161쪽.

전라도 썸생이라고 그러는데, 현장에 와선 하여간 통이 커 그렇게. 내가 보는 인성은 국쾌남 씨는 참 좋았다. 그래도 국회의원 한 번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세기상사라는 것이 누군가가 들어서서 잘 키워났으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사도 될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에 대한 애정이 많고 하는데.¹⁵⁾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1960년대 영화 기업으로서 세기상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극장 체인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외화수입업을 통해 자본을 획득한 회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들 회사가 자신들이 수입한 영화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극장들을 함께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각주 5번의 김인득의 회고에서 1959년 동양영화사는 전국 6개 도시에 11개의 개봉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수입한 영화에 대한 전국 직접 배급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동양영화사의 일만은 아니었다. 세기영화사, 한국예술영화사(대표 박원목) 등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수입사와 함께 전국에 극장들을 운영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가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96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러한 배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직배 시스템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것은 세기영화사뿐이었다. 김일수가 2003년 한 인터뷰¹⁶⁾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김: 세기상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극장이 있었고, 독자적으로 배급했지요?

일: 세기상사는 지방 별로 6개 지사가 있었어요. 지방 영화사가 아니라 직접

14) 여기서 '수미'는 배우 오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1969년 여배우 오수미는 세기상사에서 진행한 '뉴 페이스 모집'에서 2,300:1의 경쟁을 뚫고 당선되며 배우로 데뷔하였다. 당시 네 명의 배우가 함께 선발되었지만, 오수미는 독특한 외모와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데뷔 초부터 주목을 받으며 세기상사에서 제작되는 한국영화에 연이어 출연하였다. 이 때문인지 당시 국쾌남 사장이 오수미를 소속배우 이상의 의미로 '특별히 예뻐한다'는 루머가 떠돌았는데, 이 루머가 사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15) 배수경, 앞의 책, 163쪽.

16)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배급사』, 2003, 133~140쪽.

배급을 하는 지사였어요. 세기상사에 본사를 두고 부산출장소가 있었고 대구·광주·대전·경강(경기·강원)·서울 변두리. 서울 개봉관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 그러면 지사는 세기상사 작품만 받아서 배급을 하는 건가요?

일: 세기상사 영화만 배급을 했지.

김: 그렇게 편수가 많았나요?

일: 그때 당시는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외화도 수입을 많이 했고, 당시 외화 수입사도 불이무역하고 세기상사, 몇 개 없었는데 50%는 세기상사가 했을 거야, 아마.

김: 그럼 그게 60년도 중반인가요?

일: 한국영화 제작은 60년도 초였고, 외화는 그 전부터, 처음부터 했으니까 50년대 중반부터지. 직배를 했어요. A라는 영화를 지방 어디 어디 극장에서 방구미를 하게 되면, 날짜를 잡으면 우리는 각 지사에 필름을 내려보내 주지. 그 지사장이 흥행을 해서 버는 것을 본사로 올리는 거지. 우리나라 수수료 같은 거 없이 전부 다 중앙으로 올라오는 거지. (중략)

김: 지사는 직원 개념인가요?

일: 전국의 6개 지사 직원들은 세기상사에서 월급이 다 나가죠.

김: 세기상사가 언제까지 직접 배급을 했어요?

일: <북경의 55일>(니콜라스 레이, 1963)까지인데.¹⁷⁾ 69년, 70년 정도로 보면 되겠네.

김: 그 이후에는 간접배급을 했나요?

일: 회사가 어려워져서 각 지사를 철수하고, 부산 같이 큰 데는 그냥 놔두고, 경강·서울은 직접 본사에서 다 직배했고.

김: 그렇게 직배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나요? 신��플름은 어떠했나요?

영¹⁸⁾: 신��플름은 세기상사처럼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영화 배급을 하는

17) <북경의 55일> 1964년 세기상사에서 수입하여 같은 해 9월 19일 대한극장에서 개봉했다. 인용한 같은 책에서 다른 인터뷰이들 역시 세기상사가 정확히 언제까지 직배를 유지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대략 1967년을 전후하여 간접 배급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경의 55일>까지 직접배급이 이루어졌다는 김일수의 발언은 착오로 인한 오류로 생각된다.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작품을 내려 주고 배급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했지.

김: 직접배급을 했던 영화사는 세기상사밖에 없었나요?

일: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김: 세기상사에서 직배가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 세기상사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고 대명을 하지 않고, 그 당시 재정이 좋았으니까. 그후에는 세기항공이니 이런 거 해서 슬럼프에 빠졌지만.¹⁹⁾

사실 전국 극장을 소유·운영한다는 것이 영화의 흥행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입·제작사에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만, 당시의 극장 흥행이 늘 그렇게 안정적인 수는 없었다. 때문에 동양영화사나 한국예술영화사는 극장을 통한 직접 배급 방식을 빠르게 포기하고 신필름과 마찬가지로 지방 흥행사들을 통한 간접배급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세기상사는 배급 지사를 전국에 두고 이들 지사를 통해 영화를 배급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유연성 있게 직접배급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사실 위 인터뷰에서 김일수의 기억에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그럼에도 1969년 무렵까지 직접배급 체계가 유지되었다는 말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1969년 9월에 개봉하는 영화에서도 ‘로드-쇼’라는 이름하에 전국 극장에서의 연속상영 홍보문구가 보인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대한극장의 영화 상영 홍보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시기는 김일수가 말한 세기항공의 추락 사고발생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그것이 세기상사가 부진해진 주된 원인은 아닐 것이다.²¹⁾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또는 모든

18) 당시 함께 인터뷰한 양재문이다.

19) 영화진흥위원회, 앞의 책, 134~135쪽.

20) 물론 세기상사에서 직영하는 지방 극장도 있었는데, 부산의 문화극장, 인천의 인천키네마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각 배급권역 6개 주요 도시에 극장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하게 어떤 극장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

21) 김일수는 2022년 구술에서 세기상사에 위기를 가져온 두 가지 요인으로, ‘항공사고 위자료를 부도 처리한 것이 세기상사의 위기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선거(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김대중 씨 돈을 해주고 저기 한다”는 이유로 1년 동안 4번에 걸친 세무조사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분명 세기상사의 운영에



[그림 1] 『조선일보』 1963년 6월 12일자 5면에 실린 영화 《비운》의 광고. 서울 대한극장 개봉을 시작으로 부산 문화극장, 인천의 인천키네마, 대구 제일극장, 광주 제일극장, 목포 중앙극장, 대전 중앙극장 등 전국 6개 도시 극장 주요 개봉관들에서 연이어 상영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세기상사는 1970년 이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한국영화 산업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부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4. 나가며

“옛날에는 세기상사가 현대, 삼성보다 더 큰 상사라고.”²²⁾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세기상사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례로 항공 사고가 발생했던 1969년 12월, 세기개발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사업인 ‘광주천복개공사’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노무자 50여 명이 대한극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세기상사 측에서는 시공사인 세기개발이 파산함에 따라 공사 담당이 동서공영주식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책임은 동서공영에 있다고 말한다. 1960년대 후반 세기상사를 지탱하던 4개의 큰 기둥(세기상사주식회사-무역팀, 대한홍행주식회사-극장홍행, 세기항공주식회사-항공운수, 세기개발주식회사-건설) 중 하나인 세기개발의 파산은 분명 세기상사 전체에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입 달라」 상경 농성, 『조선일보』, 1969년 12월 21일자 7면 기사 참조.

22) 영화진흥위원회, 앞의 책, 146쪽.

1960년대 후반 극장을 인수하며 배급업을 시작해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 변두리 지역과 경강 배급권 대행사인 '서울영배'를 운영했던 김완배는 자신이 영화계에 입문했던 당시 세기상사의 위치를 위와 같이 표현했다.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처음 건설이나 방직 사업을 시작했던 시기도 세기상사가 설립되던 시기와 비슷했다. 이들은 같은 환경 안에서 출발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저환율정책에 따라 무역업자들에게 자본 축적이 유리했던 시기에는 세기상사와 같은 회사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막대한 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큰 돈은 또 다른 큰 돈을 부르기 마련이고, 분명 남들보다 빠르게 거액의 자본을 가진다는 것은 특히나 전후 한국의 기업가에게 중요한 성장의 발판이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렇게 모은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그 기업과 대표자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해준다.

국채남은 그 돈을 극장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당시 흥행업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선택을 완전히 틀린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극장은 김인득의 표현처럼 '매일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업이었다. 탈세나 표 빼돌리기 같은 편법은 비일비재 했으나 그런 방법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극장 흥행만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가능했다(그래서 이 시기에 영화사들은 자본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극장을 확보해 나갔다). 김인득은 그렇게 극장을 통해 자본을 더 불러 시멘트 사업으로 그리고 다시 건설업으로 뻗어 나갔다. 국채남도 합법, 위법을 가리지 않고 극장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신문기사나 사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국채남과 세기상사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는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왜 세기상사는 현대나 삼성처럼 계속 성장의 길로만 가지 못했는가? 세기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술자들은 세기가 엄청난 자본력과 정치력을 가진 회사였으며, 국채남 사장에 대해 사업적 감각도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이들의 구술에서는 세기상사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무한 확장한 것이 아닌, 그 중심에는 항상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60년대 한국의 영화 배급에 대한 증언들이

다. 세기가 만들어낸 직배 체계는 1920~40년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내에서의 배급체제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²³⁾ 국채남이 꿈꿨던 ‘세기라는 영화 기업이 어떤 형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도 독립 영화제작사들을 위해 이 배급체제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건설이나 제조업이 아닌 영화로서 대기업을 이루어보겠다는 국채남의 희망은 그가 단순히 사업가 이상으로 스스로를 ‘영화인’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처음 김재웅 구술을 읽고 ‘세기상사’라는 회사에 대해 갖게 된 호기심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사료와 이후에 진행된 구술 속 다양한 증언들 사이를 오가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틈들은 존재한다. 세기상사가 꿈꾸던 영화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 기업의 꿈 역시 아직도 정확히 그 실체를 잡을 수 없는 지점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연구자의 몫일 것이다.

23) 김일수에 따르면 당시 지사를 통한 직배는 극장의 단계(개봉관, 2번관, 3번관, 그 이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필름값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극장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직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단매로 필름을 판매했는데, 이때의 계약 조건은 일정 기간 상영 요금을 정액제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개봉 봉절을 해서 7천 원이면, 2번관은 5천 원, 그 밑에는 3천 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필름 가격을 매기고, 예를 들어 1주일 동안 하는데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단매금을 받고 필름을 내주지. 극장마다 직접.”) 1960년대부터 대구·경북 지방 배급을 담당했던 안갑수는 이에 대해 지방 극장들이 세기영화사의 영화를 꺼려했던 이유가 세기상사의 영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계약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람이 들지 않아도 정해진 상영 일수를 무조건 채워야 했다고 말한다(“세기상사하고 하면 계약을 했거든. 까다롭다고 계약 기간 동안 사람 한 명만 들어도 그 계약 기한은 해줘야 되는 거라.”). 인용된 부분은 각각 영화진흥위원회, 앞의 책, 135쪽과 192쪽 참조.

■ 참고문헌

1. 단행본

공영민, 『202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2권: 박태준 한진섭 이남기 지헌술』, 한국영상자료원, 2020.

_____, 『2022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1권: 1980년대 이후 극장 지형의 변화 - 김형중 · 김일수 편』, 한국영상자료원, 2022.

김승경, 『2015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1권: 김재웅』, 한국영상자료원, 2015.

배수경, 『2016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3권 - 임원식 편』, 한국영상자료원, 2016.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배급사』, 2003.

이순진, 『2007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자료집: 전경섭 편』, 한국영상자료원, 2007.

2. 신문기사

「외국영화수입의 맹점」, 『경향신문』, 1954년 6월 5일자 2면 기사.

「보유불매입에 흑막 탄로」, 『경향신문』, 1955년 9월 9일자 3면 기사.

「[경제로타리] '휠타로' 망신한 상공부」, 『경향신문』, 1959년 1월 16일자 1면 기사.

「나의 기업인생(49) 삶과 신앙: 벽산 김인득 <12>」, 『경향신문』, 1994년 3월 22일자 12면 기사.

「만화영화 도입에 물의」, 『동아일보』, 1956년 1월 29일자 4면 기사.

「선수입 구리세링 결제를 획책」, 『조선일보』, 1956년 5월 6일자 2면 기사.

「국상 등 거액 도난」, 『조선일보』, 1956년 5월 3일자 3면 기사.

「지체상금 수입 감소, 전매청의 휠타」, 『조선일보』, 1959년 3월 21일자 2면 기사.

「"노임 달라" 상경 농성」, 『조선일보』, 1969년 12월 21일자 7면 기사.

Unraveling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through Filmmaker Oral Histories

- Centering on the Movie Company 'Century Corporation' -

Yi, Sooyeon*

In the study of Korean film history, the memories of filmmakers who actually experienced the history can be a very important source in the absence of documentary or video material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tilize the accumulated oral history of filmmakers as a result of the 'oral history documents of film personnel' conducted by the Korean Film Archive since 2004 to study the foreign importers of the 1950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much in Korean film history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Among the many foreign currency importers that were active in the 1950s, we investigated what kind of company Century Corporation was and the nature of its operating entity, which had a lot of influence at the time but whose activities are still shrouded in mystery.

The company started as an importer of various raw materials, and in 1954, it entered the movie industry, a field in which CEO Kook Kwae-nam was personally interested. By the 1960s, the company had accumulated capital by operating theaters and creating its own distribution system, and by 1970, it had become one of the pillars of the Korean film industry, not only importing foreign currency but also producing, distributing, and promoting Korean films.

During the 1960s, when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ectors accumulated capital by expanding their affiliates and later grew into

* Korean Film Archive, Research&Curation Team Researcher

conglomerates, Century Corporation, surprisingly, invested its capital in film and sought to grow into a conglomerate in the cultural industry through the oral histories of filmmakers who worked for or with Century Corporation at the time.

Key words: oral history, Century Corporation, 1950s, korean film history, foreign film import company, Kook Kwae-nam